

MLB는 KBO보다 경기 시작 시간이 제법 자주 새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보다 보면 “오늘 어디서 보지?” 같은 질문이 계속 생기더라. 특히 같은 날이어도 중계 플랫폼이 바뀌거나, 경기 취소나 지연이 끼면 더 헷갈린다. 이럴 때 제일 덜 스트레스받는 방법이 하나 있어. MLB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Where to watch**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접속할 수 있는 채널 쪽을 확인하는 흐름이다.

이 글은 “야구중계 보려는데 채널을 못 찾겠다”는 사람 기준으로, MLB중계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면 덜 헤매는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볼게. 키워드는 야구중계, mlb중계, 야구중계사이트, 결국 다 같은 문제로 돌아온다. 어디서 틀어주냐, 그리고 내 시간이라 어떻게 맞냐.

왜 ‘Where to watch’가 먼저냐

MLB 중계를 찾을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갈래로 움직여. 첫째는 “어제 봤던 곳”을 그대로 들어가는 방식, 둘째는 “야구중계사이트”처럼 검색해서 뭔가 뜨면 클릭하는 방식이야. 그런데 이 두 방식은 모두 변수가 있다.

- “어제”는 오늘이랑 같은 보장이 없다. 같은 팀 경기라도 중계 환경이 달라질 수 있고, 일정 자체가 뒤틀릴 때도 있다.
- 야구중계사이트는 선택지가 넓어 보이지만, 중요한 건 결국 “그 경기의 정식 중계 채널이 어디냐”를 확인하는 단계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접속은 했는데 화면이 안 나오거나 경기 시작이 늦는 상황을 만나기가 쉬워.

그래서 내 추천 흐름은 이거야. **일정(경기 자체)가 먼저, Where to watch(시청 방법)가 그 다음**. MLB는 시즌이 길고 경기 수가 많아서(정규시즌 162경기 체제) “이번 주에 내가 볼 경기가 정확히 뭔지”부터 정리해두는 게 편하다. 그리고 MLB 공식 일정 페이지는 경기별로 시청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구조라, 적어도 “오늘 경기”라는 전제를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

MLB 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 잡기

MLB는 2026 정규시즌이 **2026년 3월 25일(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vs 뉴욕 양키스 경기로 시작한다고 MLB가 발표했어. 이걸 단순히 “언제 시작하냐”가 아니라,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일정 페이지가 계속 갱신된다는 뜻이기도 해.

그리고 포스트시즌 구조도 헷갈리는 사람이 많더라. MLB 정규시즌은 162경기 체제고, **2026 순위 페이지**에는 지구 우승팀 상위 2팀이 디비전시리즈로 직행하고, 나머지 4팀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르는 구조가 안내돼 있다. 즉, 시즌 내내 “경기 자체”뿐 아니라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지”가 순위 페이지와 함께 연결돼 있다는 거지.

이게 mlb중계를 보는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같은 날짜의 경기라도 “지금쯤은 정규시즌이고” “다음이 포스트시즌 가능성인지” 같은 맥락을 잡을 때 채널 찾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왜냐하면 포스트시즌은 일정이 더 촘촘해지고, 사람들도 훨씬 몰리거든. 이때 공식 일정의 업데이트 속도를 따라가는 게 제일 덜 꼬인다.

한국에서 볼 때 제일 걸리는 건 시간, 그리고 시차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실수해. MLB 일정 표기는 보통 **ET(미국 동부시간)** 기준이야. 한국 이용자는 시차를 환산해서 봐야 한다. 한국과 미국 동부의 시차는 보통 **13시간**으로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ET 기준 몇 시”를 봤다면 한국 시간으로는 보통 13시간을 더하거나 빼서 맞춰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정확한 변환이 필요하면 일정에 표시된 시간을 그대로 ET라고 보고, 한국 시간은 13시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 한국에서 새벽에 MLB를 보려던 날, 일정이 ET로 밤 늦게 잡혀 있으면 대체로 한국에서는 그 다음 날 새벽이 되는 그림이 많이 나온다.
- 반대로 한국 저녁이면, ET 기준으로 오후 쪽일 가능성이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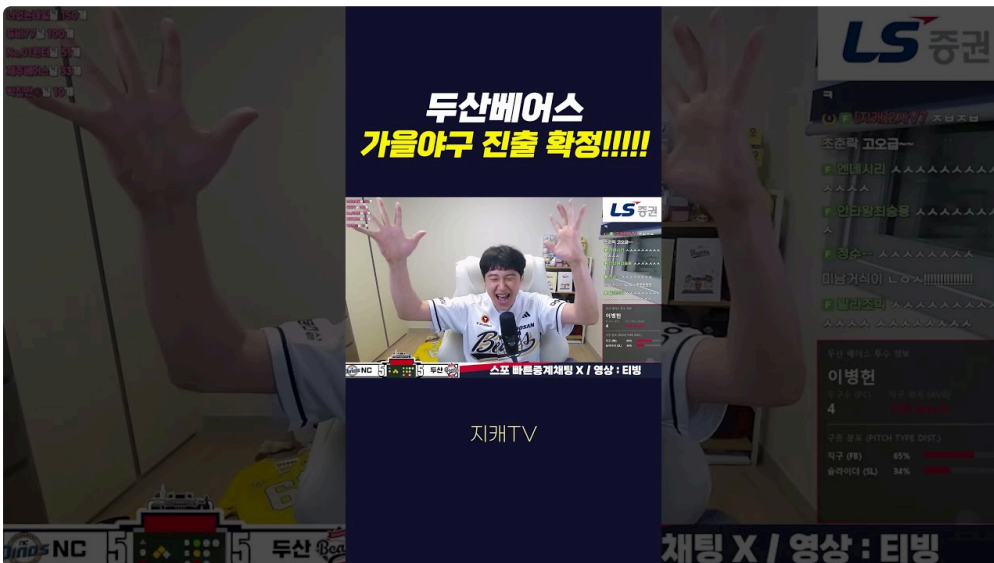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략”이 아니라 “처음부터 ET를 기준으로 두고 확인하는 습관”이야. 이 습관이 잡히면 Where to watch 확인할 때도 덜 흔들린다. 내가 헛갈리는 구간이 채널인지, 시간인지, 둘 다인지가 빨리 분리되거든.

Where to watch로 시청 채널을 찾는 실제 흐름

이제 핵심. Where to watch를 통해 채널을 찾는 과정을 최대한 실전처럼 말해볼게. 내가 실제로 써먹는 방식은 대충 “경기 날짜를 고르고, 그 경기의 Where to watch를 본 뒤, 내가 접근 가능한 쪽을 확인”하는 순서다.

보통 MLB 일정 페이지에서 날짜별 경기들을 볼 수 있고, 특정 경기를 누르면 경기 상세로 들어가면서 어디서 보는지(Where to watch)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여기서 시간을 한 번 더 확인해. ET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 시차(보통 13시간)로 환산해서 내 시간표에 딱 맞는지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이 다음이 중요해. “Where to watch가 있다”는 건 좋은 출발이지만, 내가 실제로 그 채널을 열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판단해.





- Where to watch에 표시된 시청 방법을 본다.
- 그 방법이 내 쪽에서 재생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한다.
- 만약 접근이 애매하면, 같은 경기라도 다른 방식으로 보는 옵션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본다. (이건 경기 상세에서 제공되는 정보 범위 안에서만 확인하는 게 좋아.)

여기서 한 번만 더 강조할게. MLB중계는 “사이트에서 뭘 틀어주더라”보다 “오늘 경기의 공식 시청 방법이 뭔지”가 먼저야. 그래야 엇박이 안 난다.

KBO도 같이 보려는 사람들, 비교하면서 해매지 말자

야구중계를 같이 챙기는 사람들 보면 KBO와 MLB를 섞어서 보다가 일정 혼선이 생기곤 한다. 특히 KBO는 단일리그제고,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구조로 공식 안내돼 있다. KBO 정규시즌은 2026년 3월 28일(토) 개막이고, 개막전은 상위 5개 팀 홈구장에서 열린다고 되어 있어.

또 KBO는 공식 경기 운영/일정 페이지에서 경기별 시간, 중계 채널,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KBO 일정 페이지의 [야구중계 사이트 추천](#) 구성 자체가 “TV/RADIO, LOCATION” 같은 정보로 제공되는 편이라, 채널을 찾는 감각이 비교적 직관적인 편이야.

반면 MLB는 Where to watch가 경기 단위로 제공되는 구조라, 처음부터 “일정 상세에서 시청 방법 확인”을 체득하는 게 편하다. KBO처럼 생각하고 “그냥 검색하면 나오겠지”로 가면, MLB에서는 타이밍만 놓치기 쉬워.

그래서 내 방식은 간단해. KBO는 공식 일정에서 시간과 TV/RADIO를 보고, MLB는 공식 일정에서 Where to watch를 먼저 본다. 둘 다 공식 일정에 붙어 있는 건데, 접근 방식의 우선순위만 다를 뿐이야.

중간에 변수가 생길 때, 어떤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냐

야구중계 보면서 제일 짜증 나는 상황은 이거야. 시작 시간이 살짝 밀리거나, 경기 취소나 연기 같은 변수가 끼는 날. 이건 내가 어떻게 검색하느냐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정이 업데이트되는 속도를 따라가야 해결된다.

여기서 다시 공식 일정 페이지의 장점이 살아난다. MLB도 일정 페이지와 순위 페이지가 공식적으로 업데이트된다고 안내돼 있고, KBO도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경기별 시간, 중계 채널, 장소를 확인할 수 있어. 결국 변수가 생겨도 “내가 보던 정보가 오늘 기준으로 여전히 맞는지”를 갱신하는 루틴을 만들면 덜 흔들린다.

내가 추천하는 루틴은 길지 않아. 경기 전날에 미리 체크하고, 당일에는 시작 시간과 Where to watch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방식이야. 특히 새벽 경기처럼 시간에 민감한 날일수록, “완전히 같은 화면에서 계속 본다”보다 “짧게라도 다시 확인”하는 쪽이 오히려 시간을 절약해.

내가 정리하는 '시청 채널 확인' 체크포인트

리스트까지는 딱 필요한 만큼만, 여기만 짧게 묶어볼게. (이거 하나만 지키면 [mlb중계 사이트](#) mlb중계 찾을 때 많이 덜 헤맨다.)

- 경기 날짜가 맞는지, 일정 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하기
- MLB는 ET 기준 표기인 경우가 많아서 한국 시차(보통 13시간)로 환산하기
- 경기 상세에서 Where to watch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기
- Where to watch에 나온 시청 방법이 내 쪽에서 재생 가능한지 점검하기
- 당일에 시작 시간과 정보가 바뀌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이 5개가 되면, 야구중계사이트를 굳이 계속 돌려보는 횟수가 확 줄어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틀릴 확률이 낮은 길”로 가는 거라 마음이 편해.

야구중계사이트는 완전히 버려야 하나, 그건 또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야구중계사이트를 아예 끊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람들이 검색하는 이유가 다 있거든. 화면 접근성이 편하거나, 한 번에 정리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경기 결과 확인까지 묶여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 **공식 일정에서 Where to watch와 경기 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한 뒤**, 보조 수단으로 쓰는 게 안전하다. 즉, 사이트는 “확정”이 아니라 “편의”로 두는 거지. 공식에서 경기 자체와 시청 방법을 먼저 잡아놓으면, 사이트에서 뭘 보더라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공식 일정은 나침반이고, 야구중계사이트는 지도 앱 같은 거야. 나침반 없이 지도만 보는 순간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

시즌 중반부터 체감이 바뀌는 포인트

MLB는 정규시즌이 162경기라서, 시즌이 깊어질수록 일정이 촘촘해지는 느낌이 생긴다. 그리고 포스트시즌은 지구 우승팀 상위 2팀 직행, 나머지 4팀 와일드카드 시리즈라는 구조가 안내돼 있으니까, 순위 페이지를 같이 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다음 경기가 중요해지는 시점”을 체감하게 된다.

이때 채널 찾기는 더 단순해질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자주 보던 팀 중심으로 일정과 Where to watch를 반복 확인하게 되거든. 처음엔 “어디서 봐야 하지?”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팀 경기는 보통 여기로 보게 되더라” 같은 패턴이 생긴다.

그런데도 가끔은 깨진다. 그래서 결국 답은 하나로 돌아간다. 경기 단위로 Where to watch를 확인하고, ET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맞춰서 들어가는 습관. 이게 가장 오래 가는 방식이더라.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부터 바로 적용해보자

오늘 MLB중계를 보려는 거라면, 거창하게 준비할 필요 없고 딱 이렇게만 해봐.

- 내가 보고 싶은 경기를 먼저 찾는다.
- 경기 상세에서 Where to watch 정보를 본다.
- ET 시간을 한국 기준으로 맞춘다. (보통 13시간)
- 그 다음에 실제로 재생 가능한지 확인한다.

이 흐름만 잡히면 야구중계사이트를 여기저기 헤매는 시간은 확 줄어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내가 놓친 게 채널 문제인지, 시간 문제인지”가 빨리 분리된다는 점이야. 그게 쌓이면, 다음부터는 MLB중계가 훨씬 편해진다.

원하면 너가 자주 보는 팀이나 보통 시청 시간이 "한국 기준으로 언제쯤"인지 말해줘. 그러면 ET-한국 시차 기준으로 대략 어떤 시간대 경기 패턴이 많은지, 공식 일정에서 어떻게 확인하면 될 헛갈리는지 너한테 맞춰서 더 현실적으로 정리해줄게.